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1/9℃ 목포 1/9℃ 여수 1/9℃

단기 4342년 (음력 7월 2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472호 1판 2009년 9월 14일 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통합 논의 한창 광양만권·무안반도·강진 장흥 주민들

"공직자들 기득권이 장애물"

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의 행정구역 통합을 둘러싸고 지역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통합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 공무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또 일부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흡수통합에 대한 불안감 해소, 그리고 주민이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설득과 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일보가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여수·순천·광양과 목포·무안·신안, 그리고 장흥과 강진 등 3개 권역 가운데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광양, 무안, 장흥 지역 주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들 지역민은 공무원의 통합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왕섭 장흥군 보훈회장은 "대다수 주민은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의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우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통합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기득권을 고수하려 한다면 통합작업이 큰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반응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이 흡수되거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최병삼 전 무안군의원은 "무안과 신안, 목포가 통합되면 무안의 문화와 가치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통합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함성장 무안목포통합반대 위원회 대책위원장은 "통합할 경우 무안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상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계하고 "특히 다른 지역에 있는 혐오시설들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무안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채은하 장흥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소단위 통합으로는 경쟁력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통합에 따른 확실한 비전 없이 제시되는 인센티브는 사탕발림에 불과하며, 통합을 노리는 유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통합 반대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이들 지역 내에서도 일부는 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홍원 광양 길호공유수면매립조합장은 "지금은 광양이 통합을 반대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인근 시·군과 통합논의를 진행하며 어떤 실리를 찾을 것인지 모색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희웅 장흥군 행정동우회장은 "지난 2005년엔 강진과 장흥군수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정부에 혁신도시로 선정해달라는 건의를 했던 선례도 있다"며 "장흥과 강진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 통합의 명분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충장축제 원래대로 치른다

'신종플루 취소' 광주·전남 김치축제·음식문화 큰 잔치 등 개최 검토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각종 축제·행사 개최를 제한했던 정부의 방침 변경으로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잇따라 취소·연기했던 행사의 재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올 가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던 광주·전남 지역 20여개 지역 이벤트들이 애초 일정대로 치러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시 동구청에 따르면 정부 방침으로 취소키로 했던 '제6회 충장축제'(10월13~18)'를 원래대로 치르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폐쇄공간이 아닌 야외에서 치러지는 행사의 개최 여부를 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겼기 때문이다. 또 충장로 일대에서 행사가 치러지는 점 때문에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

화순 풍물문화축제(10월14~18일)의 개최 여부를 고심했던 화순군도 새로운 정부 지침에 따라 행사를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광주시도 세계광엑스포(10월9일~11월5일·연기), 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0월11일·축소), 김치문화축제(10월23일~11월1일·축소) 등 3대 축제의 정상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을 우려해 각종 행사를 묶었던 행안부가 야외 행사 등을 허용했기 때문에 연기·취소한 행사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검토 대상은 축소해 치르기로 한 김치축제와 디자인비엔날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내 지자체들도 기존 행사·취소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검토 대상은 광양 전어축제를 비롯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 ▲순천만 갈대축제 ▲지리산 피아골 단풍 축제 ▲보성 소리 축제 등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새로운 지침을 내려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면서 만5세 미만의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의 축제·행사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의 자율판단에 의해 행사를 치르도록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재래식
청국장/된장/조선장/청국된장
가정용·업소용 판매
순대장 100%
山水土風
은 정직합니다.
소비자 (061)381-9893
상담실 010-6586-0001
•토종건강음식점 온양본점 성업중•

내일부터 인사청문회

총리 등 여야 격돌 예고

정기국회가 이번주 초부터 민일영 대법관과 신임 각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간 대결이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당장 '9·3 개각'에 따른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간 첫 격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지식경제·주호영 특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15일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임태희 노동(16일), 이귀남 법무(17일), 김태영 국방·백희영 여성(18일), 정운찬 총리(21일)등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연합뉴스

알림

월요 갤러리

유수종 作 '달과 해오라비'

〈캔버스에 유화〉

만개한 해오라비꽃은 하늘을 향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하다. 춤추는 듯 자유분방한 필선에서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진다.

하얀 꽃잎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그려넣은 보름달은 완숙한 미학의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다.

조선대 미대와 전남대 교육대학원 출신으로 20여차례의 개인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를 통해 보다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